

역사란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학문이다.

역사가의 명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이다. 2월 27일 독립 기념관을 갑작스럽게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도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가기 위한 것"라고 같은 의미의 발언을 했다.

이런 발언의 배경에는 23일 주한 일본대사 다카노 도시유키가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기 때문이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끊임없는 망언과 침략 35년간에 대한 무반성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간도 영유권을 돌려줘서 우리나라의 역사까지도 선점하고자 하는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이제 주변 국가들과 역사 전쟁을 벌여야 하는 입장이 되고 말았다. 일본과 중국이 왜 이토록 집요하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동북아 국가들의 미래가 과거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 전쟁을 주도해야 할 우리나라 역사 교육의 현황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했던 만큼 확실하고도 체계적인 역



불자 세상보기

서인원
문학박사 · 진선여고 교사

거꾸로 가는 국사 교육

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대답은 한마디로 '절대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학교 교과에 사회는 있어도 역사는 없다. 미국에 유학했던 교육론자들은 1992년부터 세계사와 더불어 국사를 사회과에 통합시켜 버렸다. 또한 7차 교육 과정에서는 국사 수업 시수를 주당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였다.

그러나 국사 교과의 분량은 오히려 늘어나서 수박겉핥기보다도 더 나쁜 교육 환경이 되고 말았다. 더군다나 국사도 개항을 기준으로 국사와 한국근현대사의 두 과목으로 쪼개놓고, 한국

근현대사는 선택 과목으로 만들어버렸다. 이에 따라 한국근현대사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은 배울 기회조차 없는 것이다. 특히 수능 시험에서는 전 수험생의 28.1%만이 한국근현대사를 선택했으므로, 나머지 학생들은 전혀 배우지 않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국가 정책이 있어서도 1997년 사법고시에서 국사 과목이 폐지된 이후, 2005년 이후에는 행정 · 의무고시에서도 제외된다.

국사 교육이 확대되면서 관련 교원의 전문성도 크게 약화되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일반 사회 전공자를 선발하는 것이 교육 과정에 유리

하다는 이유로 역사 전공자를 잘 뽑지 않는다.

이렇듯 고교 과정에서 한국근현대사를 안 배우고, 국가시험에서도 국사 과목을 치루지 않은 공무원들이 일본의 독도 망언 및 침략에 대한 무반성과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처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다가는 중국이 왜고 구려사 등 우리나라 역사를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고, 일본이 왜 우리에게 사과해야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세대를 배출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국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국사 과목을 사회 과목에서 독립시켜야 하며, 한국근현대사를 국사에 통합하거나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 입시에서 국사와 한국근현대사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여야 하며, 국사 수업의 시수를 주당 3시간으로 다시 되돌려야 한다. 그리고 발전된 국사 과목을 바탕으로 세계사 과목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들이 쉽게 국사에 접할 수 있도록 국사 교육을 대중화하여야 하고, 연구 중심의 국사편찬위원회와는 다른 국사 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국사 교육을 전문화하여야 한다.

영양이 된 국사 교육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소를 잃었더라도 외양간을 고쳐 놓아야 다시는 소를 잃지 않는다.

불자의 눈

불교는 타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기여도가 아주 낮은 편이라는 인식은 사회일반대중 뿐만 아니라 불자들까지도 부정하지 못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복지 참여와 관련된 불교의 이미지는 불교의 사회적 위상이나 포교에도 상당한 위축과 지장을 끼쳐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를 외면하는 종교는 점차 설 땅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는 또한 모든 공덕을 중생에게 회향하겠다는 불교의 목표와도 상충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최근 서울 조계사에서 우리의 이름을 끌어당기는 '선언'이 나왔다. 즉 기도비의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적립하겠다는 이른바 '나눔운동'이 그것이다. 그 내용은 모든 축원 기도 동참비 가운데 15%를 사회복지기금으로 원천적으로 별도 회계처리한다는 것이다. 이는 불교의 사회적 기여도를 제고시키는 한편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적지 않다.

15% 나눠 100% 행복만들기

한국불교를 상징하는 중심사찰 조계사의 '복지기금 적립 선언'은 한국불교가 한국사회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제 역할을 해나갈 것인지를 선구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종교가 타락과 위선의 나라로 떨어지지 않고 옹골게 곧추서기 위해서는 자기 정체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기여도를 제고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이 두 가지 과제는 시공을 초월해 건강한 종교가 지녀야 할 영원한 명제인 것이다.

조계사의 나눔운동은 조계사만의 독자적인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반드시 일파만파로 번져 나가 전국의 사찰들이 환희심으로 동참해야 한다. 그리하여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불교, 종교적 이상을 실천해 가는 불교를 우리 불자들이 힘 모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불교는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다. '중생무번서원도'를 더 이상 구호에 그치게 해서는 안된다.

조계사처럼 전국의 사찰들이 앞다투어 사회복지기금을 적립해 운용해 나가는 뜻뜻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을 불자들은 물론 여러 사회대중들이 기대하고 있다. ■도수영(법당 화주)

'연대' 민영



이렇게 들었다

책 리플

백 년 동안 때 묻은 옷이라도 하루 동안에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이, 백천경 동안에 지은 모든 불선업(不善業)도 불법(佛法)의 힘으로 잘 수순해서 닦으면 일시에 소멸하는 것이다. <심지관경>

지난 2월 말 <도산잡영>(이항 지음)이라는 책을 펴낸 을유문화사가 이 책을 전량 수거해 다시 제작할 방침이라고 한다. 책을 출고한 뒤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일종의 '책 리플'인 셈이다.

잘못된 부분은 책 전체 300여 쪽 가운데 10여개 문장의 글자가 다른 글자와 겹쳐있는 것이었다. 인쇄과정에서 빚어진 실수였다. 이런 경우 정오표를 만들어 책 속에 끼워 넣어 오류를 바로잡기도 한다. 하지만 을유문화사는 책을 다시 찍기로 한 것이다.

제품의 결함에 대해 보상하는 소비자보호제도인 리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보통 부품을 교환하는 수준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책 리플은 전체를 다시 찍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막대한 손실을 감안해야 하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이 소식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지금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고사하고 남에게 떠넘기기 바쁘다. 남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 이익 쟁기느라 정신이 없다. 기업은 소비자 위에서 군림하려 한다.

물론 을유문화사의 이런 선택은 독자에 대한 당연한 의무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뉴스거리일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원칙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이 화젯거리로 등장한다. 그만큼 드문 일이라는 얘기다.

을유문화사는 적어도 금전적으로는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다. 하지만 독자들로부터는 신뢰를 얻었다. 그 신뢰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다. 을유문화사는 더 큰 것을 얻은 것이다. ■한명우(취재부 차장)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정림사지 전시관은 일본풍?

부여에는 백제시대의 대표적 사찰이었던 정림사지가 있다. 그리고 정림사의 유물 등을 전시하는 정림사지 전시관이 만들어지고 있다. 부여군이 150억원이나 되는 큰 돈을 투입해 만든다는 정림사지 전시관을 보면 기분이 이상해진다. 외관에서부터 우리나라 전통건축이 아닌 일본의 건축양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어느 신문 기사에서 보니 우리나라 전통 건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명백한 일본풍 건축양식이라고 했다. 백제를 대표하는 정림사의 유물과 역사를 전시한 정림사지 역사관이 왜 우리 전통 양식도 아닌 남의 나라 건축양식으로 되어있어야 하는지 한심하다.

무엇때고 건물들 짓기 전에 전시관이 대표해야 할 문화재가 어떤 역사 속에서 흥멸해 왔는지부터 검토하고, 전시물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먼저 배워야 할 것이다. ■내해준(충남 부여군 부여읍)

조계종 문장 등록에 대해

삼보문을 조계종 얼굴로 등록을 했는데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다. 조계종이란 종단의 명칭도 몇 개가 등록되었고 그런 유사 조계종이 조계종의 삼보문을 비슷하게 도용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이다. 조계종에서 응용될 수 있는 도안을 개발해서 추가 등록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동영상의 도안도 삼보문을 응용해서 꾸러가는 모양으로 하면 어떨까. ■조돈창(조계종 홈페이지)

"법사님 모십니다"

강서구 외발산동에 있는 공수부대인 특전사 독수리부대의 불자 회장이자. 매년 (사)우리는천우에서 10월경 주최하는 장애우와 놀이기구 행사에 꼭 참석을 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대는 매주 법사 스님이 번갈아 가며 오시는데 공교롭게도 매월 4번째 일요일은 아무도 오시지 않아 법회조차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혹시 여건이 되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17-677-6491 / 0756

참군인(웃다뉴스)

제26회 만해백일장 시부문 대상작

바라보다

최송아(과천외국어고등학교 3학년)

나는 산세베리아
가만히 온실 밖을 내다보다
길 건너편에서는 오늘도
아침부터 포크레인기사가
빠만 남은 창틀을 산산조각 낸다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마을의 고요
무너진 담벼락 사이에 끼어
목이 부러진 들꽃들도 축 늘어져 있다
클락거리는 바람이 꽃잎을 흔들대면
목이 터져라 재개발 반대를 외치던
헬사 같은 푸른 깃발들도
픽, 픽 힘없이 쓰러진다
빈집 뿌리 뽑힌 살구나무엔
떠날 때 없는 뒷새들이 앉아 있고
새로 생겨난 개발지구 화원에서
나는 지금, 외곡된 계절인 줄 모르고
온 몸을 쪽쪽 편다, 일광욕을 즐기던
덧발의 고추와 가지는 머리끝까지
소음을 뒤집어 쓴 채 편도선을 않는다
텅 빈 축사 갈라진 여름물 사이
이름 모를 이끼들만 곱팡이로 피어있고
시커멓게 뒤틀린 벽, 구멍으로
불쑥불쑥 바람만 요란스레 드나든다
처마 그늘진 곳에 등지를 틀고
겨울 양식을 장만하던 거미들
짙어진 허공만 멍하니 바라본다
이젠 말라 흩날리던 풀잎 이는 우물 속에
방금 호두알 하나가 떨어졌다
바깥 구경도 지루해진 나는
한껏 늘어지게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켜다

*신문부문 대상 수상작은 www.buddhanews.com에서

제16기 전생 · 빙의 / 영치유법 특별강좌!

전생(前世),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최면-전생·빙의/영치유법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 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교육내용 과정별 교재 및 실습예외 제공

Table with 2 columns: Topic (빙의치유법, 전생요법, 정통사주명리학, 최면학) and Content (빙의 진단법, 약령제일법, 전생과 현생, 사주로 조상 영가, 최면의 원리, etc.)

빙의(憑依)란? 흔히 귀신들림으로 말해지던 영혼이나 강력한 힘, 절대적 신의 힘이 사람에게 침투하여 삶의 전반이나 특정 중생에 영향을 주고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내 안에 누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나를 조정할 수 없다", "누군가 내 머리속에서 뭐라 얘기하는 것 같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등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상한 행동, 괴벽, 정서불안, 우울증 등의 증세를 보이기도 하며, 때로는 환청이나 환각, 악몽, 가위눌림 등으로 시달리기도 하고 빙의의 영가의 생전시 질병이나 사고 부위에 같은 증상으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세계 보건기구(WHO)국제 질병 분류에는이를 포제션(Possession)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원인 모를 불임시에도 낙태 영가를 의심해야 한다.

본 강좌 개강 3월 16일(매주 수요일) 오전10시~18시까지 7회 과정

- ▶ 신청요령 : 전화접수 및 방문신청
▶ 교육비 : 200만원
▶ 입금계좌 : 조흥은행 591-01-008086
예금주 : 한국의식개발원

교육이수 후 무료 재수강 및 지속적인 자문지원

통신교육 방식
▶ 전생·빙의/영치유 전체교육내용을 실황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를 매주 1회(2시간용 3개씩)우송(7회과정 비디오 테이프 총 20개)
▶ 실습능력 점검 및 질의응답 등 보충교육을 위해 1회 분원에 출석수업
▶ 특전:수료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발급 및 한국전생빙의연구회 가입 후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 교육비 : 200만원



원장 상담학 박사 임명형

주최 : 한국전생·빙의연구원
주관 : 한국최면과학원

전화 : (042) 255-0734-5
주소 : 대전시민회관후문 청운빌딩 (2층 본원 강의실) 대전역에서 5분거리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본 교육 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거나 1만원을 송금하시면 공개강좌 비디오 및 안내 자료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3월 9일
오후1시~3시까지

한국생활철학연구소 회장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
한국치유학회 대학원 겸임교수
SBS백만불 미스터리, Vj세상 속으로, KBS, iTV, CMB 등 출연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 및 다수 대학에서 강의